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 5, No. 2, pp. 45~49 (2005)

한국치위생과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SCIENCE

치과위생사의 자기구강건강관리에 관한 연구

이 경 애
수원여자대학 치위생과

A Study of the Real Conditions of the Management of Dental Hygienists' Self-Oral Health

Kyung-Ae Le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uwon Women's College, Suwon City, Kyungki-do 411-748, Korea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to present basic materials necessary for offering the more effective way of dental hygienists, or those who are in charge of the education of Oral health, the treatment and prevention of dental problems, educating Oral health by stage by dint of determining the actual condition of the knowledge and management of dental hygiene, or prevention of the basic dental disease except the professional methods of dental management and evaluating their abilities to manage dental hygienes. In terms of the real conditions of the management of dental hygienes, the majority of the subjects said, "not bad" or "healthy". Most of them (62.1%) said that they brush their teeth three times a day, and most of them (85.2%) depend on rolling methods. 69.2% of them used brushes that are neither hard nor soft, and 28.4% of them use soft brushes and 49.7% of them brush their teeth for about 3 minutes. In terms of brushing time, 27.8% of them brush their teeth after lunch, while 23.8% of them brush their teeth after breakfast. 66.3% of them use fluoric tooth pastes while 19.5 percent of them said, "I have no idea." and 14.2% of them said, "No." In terms of complementary dental hygiene goods, dental goggles are used by 23% of them, and dental threads are used by 78.1% and tooth brushes are used by 78.1% of them, and 42.4% of the subjects use the instruments one to twice a day, and 53.8% of them use them for less than one minute a time. In terms of dental health care, 17.2% of them have a chew of gum and 8.3% of them pay a regular visit to dental clinics and 5.3% of them don't smoke.

Key words Oral health, Dental hygienist

서 론

구강건강(Dental health)이란 상병에 이환되어 있지 않고 정신작용과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 악안면 구강조직 및 장기의 상태라고 정의 할 수 있다[1]. 그래서 구강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결함이 없는 완전무결한 구강과 고통을 없애고 인간의 생존 현상을 유지시키며 생활상의 장애를 제거하여 주기 때문에 잘 관리되어져야 한다[2]. 구강관리는 치아와 구강을 청결히 관리하고, 올바른 구강위생관리, 적절한 영양섭취 그리고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여 점검하는 것을 포함한다[3].

치과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와 함께 국민의 구강병을 예방하고 공중구강보건 증진 및 향상에 관한 업무, 구강진료보조업무, 응급구강상병의 처치에 관한 업무 등을 시행하는 의료기술전문가로서[4]구강보건 관리에서부터 환자관리의 계획, 구강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한 예방적 서비스의 제공 및 올바른 구강 위생 습관을 갖도록 하는 교육적 측면의 역할까지도 담당하게 되었으며 서비스에 대한 요구 수준도 높아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전문직업인으로서 자질 향상에 대한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5].

치과위생사는 구강상태에 따른 환자의 감정적인 욕구와 심리적인 반응을 알아야 하며 환자에게 교육을 통하여 치과위생과 관련된 일정한 행동을 실행하도록 독려하고 전문적 치료에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역할은 각 환자를 위한 처치와 예방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도와주는데 있다[6]. 치과위생사는 구강질환의 원인 및 예방에 관해 정확한 지식을 숙지하여 진료대상자 및 일반대중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구강보건에 관한 태도 및 실천방향이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변화시킬 책임이 있으며[7] 환자 구강보건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자나 일반인 대상으로 좋은 구강위생관리 행위의 역할 모델이 되어야한다. 그리하여 자신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신의 행위를 변화시켜야 하며 구강질환의 예방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구강건강관리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을 스스로 실천해봄으로써 환자가 수행하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인 구

Corresponding author
Tel: 011-762-1864
Fax: 031-290-8120
E-mail: kalee21@hanmail.net

강건강실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지적인 동기를 유발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기술연마 및 학술교류 등에 의한 연찬이 필요하다[5]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자는 현재 임상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전문가적 관리방법을 제외한 가장 기본적인 구강질환 예방법인 구강위생에 관한 지식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치과위생사의 자기구강건강관리 능력을 평가하고 국민구강관리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조사는 경기도와 서울시 치과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여 직접 방문한 후 설문지를 작성토록 하였다. 자료수집은 2002년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총 2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180부를 회수하여 총 90%의 회수율을 보였고 그 중 기재가 누락되거나 미흡하게 대답하여 결과분석이 곤란한 설문지 11부를 제외하고 169명의 설문지를 자료로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한 도구로는 치과위생사의 자기구강건강관리에 관한 능력을 알아보는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설문지는 문헌고찰(강명신, 1994; 장희경, 2001; 김혜경, 2001)을 통해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내용으로는 조사대상자의 구강위생 지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잇솔질 교습, 불소도포, 치면세마, 치면열구전색, 구강보조용품 사용 방법 등으로 구성되었고 구강건강관리실태는 현재 본인이 자각하는 구강상태, 하루 잇솔질 횟수시기방법시간, 치약의 불소함유 유무, 사용하는 칫솔구강보조용품, 기타 구강위생관리 활동 등으로 구성되었다.

3.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에 대한 결과의 통계분석은 spss 10.1 version program을 사용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연령, 결혼 여부, 학력, 근무처, 직원 수, 근무경력 등을 조사하였다(표 1).

연령 분포를 보면 20-24세가 52.7%(89명)이고 25-29세가 38.5%(65명), 30세 이후가 8.8%(15명)로 임상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치과위생사가 20대 초반의 연령분포를 나타내었다.

학력별로는 의학 기술원 2.4%(4명), 전문대졸이 90.5%(153명), 대졸이 4.7%(8명), 대학원 이상이 2.4%(4명)로 대부분 전문대졸 이상이었고 근무연수 별로는 0-2년이 38.5%(65명), 3-5년이 36.7%(62명), 5년 이상이 24.8%(42명)로 대부분이 5년 이하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미혼자가 81.1%(137명), 기혼자가 18.9%(32명)로 미혼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근무처를 보면 보건소 3.0%(5명), 종합병원 6.5%(11명), 치과병원 34.3%(58명), 치과의원 55.6%(94명)로 나타났으며 근무처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의 수를 보면 1-2명이 10.0%(17명), 3명이 15.4%(26명), 4명 이상이 74.6%(126명)로 대부분 4명 이상의 staff수를 이루었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N(%)

특성	구 분	빈도	퍼센트(%)
연령	20-24세	89	52.7
	25-29세	65	38.5
	30세 이후	15	8.8
결혼여부	미혼	137	81.1
	기혼	32	18.9
최종학력	전문대졸	153	90.5
	의학기술원	4	2.4
	대졸	8	4.7
	대학원졸	4	2.4
근무처	보건소	5	3.0
	종합병원	11	6.5
	치과병원	58	34.3
	치과의원	94	55.6
	무응답	1	0.6
근무처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 수	1-2명	17	10.0
	3명	26	15.4
	4명 이상	126	74.6
근무경력	0-2년	65	38.5
	3-5년	62	36.7
	5년이상	42	24.8
계		169	100.0

2. 대상자의 구강위생의 지식정도

연구대상자의 구강위생 지식정도는 (표 2)와 같다.

대상자의 구강위생에 관한 전체적인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 대상자의 구강위생에 관한 지식 정도 N=169

특 성	구 분	N(%)	M	S.D
잇솔질 교습	매우 잘 알고 있다	125(74.0)	3.70	.53
	알고 있다	38(22.4)		
	보통이다	6(3.6)		
	잘 모르겠다	0(0.0)		
치면열구 전색	매우 잘 알고 있다	140(82.8)	3.82	.39
	알고 있다	28(16.6)		
	보통이다	1(0.6)		
	잘 모르겠다	0(0.0)		
치면세마	매우 잘 알고 있다	140(82.8)	3.82	.39
	알고 있다	28(16.6)		
	보통이다	1(0.6)		
	잘 모르겠다	0(0.0)		
불소도포	매우 잘 알고 있다	121(71.6)	3.70	.48
	알고 있다	46(27.2)		
	보통이다	2(1.2)		
	잘 모르겠다	0(0.0)		
구강 보조용품의 사용 방법	매우 잘 알고 있다	99(58.6)	3.52	.63
	알고 있다	61(36.1)		
	보통이다	7(4.1)		
	잘 모르겠다	2(1.2)		
	전 체	3.71 .48	Min=12	
	총 점	18.57 2.42	Max=20	

3.71±.48이였으며 최저점 12점에서 최고점 20점까지 나타났다. 지식 정도의 점수가 높은 항목으로는 치면열구전색과 치면세마가 3.82±.39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잇솔질 교습으로 3.70±.53, 불소도포 3.70±.48, 구강보조용품 사용방법 3.52±.63 순으로 나타났다. 구강보조용품의 사용 방법에 관한 지식은 다른 항목보다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였다.

3. 대상자의 구강위생 관리실태

연구대상자의 구강위생 관리실태는 (표 3)과 같다.

표 3. 대상자의 구강위생 관리실태 N=169

특 성	구 분	실 수(%)
자기구강건강상태평가	건강하다	63(37.3)
	보통이다	75(44.4)
	이상이 있다	29(17.1)
	잘 모르겠다	2(1.2)
하루 잇솔질 횟수	1-2회	5(3.0)
	3회	105(62.1)
	4회	48(28.4)
	5회 이상	11(6.5)
잇솔질 방법	rolling법	144(85.2)
	bass법	20(11.8)
	챠터스법	2(1.2)
	폰스법	3(1.8)
칫솔의 종류	부드러운 모	48(28.4)
	중간 모	117(69.2)
	단단한 모	4(2.4)
잇솔질 시기	아침식사 전	47(27.8)
	아침식사 후	134(79.3)
	점심식사 후	157(92.9)
*다중응답 표기	저녁식사 후	118(69.8)
	간식후 자기전	108(63.9)
잇솔질 시간	1-2분	42(24.9)
	3분	84(49.7)
	4분	22(13.0)
	5분 이상	21(12.4)
치약에 불소함유 유무	예	112(66.3)
	아니오	24(14.2)
	잘 모르겠다	33(19.5)
사용하고 있는 구강보조용품	전동칫솔	4(2.4)
	구강양치액	39(23.1)
	치간고무자극기	8(4.7)
	water pick	6(3.6)
	없다	112(66.3)
치실이나 치간칫솔 사용유무	예	132(78.1)
	아니오	37(21.9)
사용 빈도 n = 132	1일 1-2회	56(42.4)
	1일 3회 이상	22(16.7)
	1주일에 1-2회	38(28.8)
	기 타	16(12.1)
1회 소요시간 n = 132	1분 미만	71(53.8)
	1분 이상	42(31.8)
	2분	12(9.1)
	3분 이상	7(5.3)
본인의 구강건강관리활동	금연	9(5.3)
	정기적 치과 방문	14(8.3)
	식사 후 껌 저작	29(17.2)
	없다	101(59.8)
	기타	16(9.4)
전 체		169(100.0)

현재 자신의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수가 44.4%(75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건강하다' 37.3%(63명), '이상이 있다' 17.1%(29명)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 1.2%(2명)로 나타났다.

하루 잇솔질 횟수는 3회가 62.1%(105명)로 가장 높았고 4회 이상이 28.4%(48명), 5회 이상이 6.5%(11명), 1-2회가 3.0%(5명)순으로 나타났으며 잇솔질 방법으로는 rolling법이 85.2%(144명), bass법이 11.8%(20명), 폰스법 1.8%(3명), 챠터스법이 1.2%(2명)순으로 나타났다. 사용하고 있는 칫솔의 종류로는 중간 모가 69.2%(117명)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부드러운 모로 28.4%(48명), 단단한 모가 2.4%(4명)를 차지하였다. 잇솔질 시기는 다중응답 표기로 점심식사 후가 92.9%(157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침식사 후 79.3%(134명),저녁식사 후 69.8%(118명), 간식 후 자기 전 63.9%(108명), 아침식사 전 27.8%(47명)순으로 나타났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의 사용여부에서 총 169명중 132명이 사용한다고 대답했으며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에 대해 1일 1-2회가 42.4%(56명)로 가장 많았고 일주일 1-2회가 28.8(38명), 1일 3회 이상이 16.7%(22명), 기타 12.1%(16명)순으로 나타났다. 1회 소요시간은 1분 미만이 53.8%(71명)로 가장 많았으며 1분 이상이 31.8%(42명), 2분이 9.1%(12명), 3분 이상이 5.3%(7명)순으로 사용하는 시간은 85.6%(113명)가 2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잇솔질 시간은 3분이 49.7%(84명)로 가장 많았고 1-2분이 24.9%(42명), 4분이 13.0%(22명), 5분 이상이 12.4%(21명)순이었다. 사용하고 있는 치약의 불소함유 유무는 '예'라고 응답한 수가 66.3%(11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잘 모르겠다'가 19.5%(33명), '아니오'라고 응답한 수가 14.2%(24명)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강보조용품으로는 구강양치액 23.1%(39명)로 가장 많았고, 치간고무자극기 4.7%(8명), water pick 3.6%(6명), 전동칫솔 2.4%(4명)순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구강건강관리 활동으로는 식사 후 껌저작이 17.2%(29명)로 가장 많았고 정기적 치과방문이 8.3%(14명), 금연이 5.3%(9명)순으로 나타났다.

고 찰

지식 정도의 점수가 높은 항목으로는 치면열구전색과 치면세마가 3.82±.39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잇솔질 교습으로 3.70±.53, 불소도포 3.70±.48, 구강보조용품 사용방법 3.52±.63 순으로 나타났다. 구강보조용품 사용방법에 관한 문항은 다른 문항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였다. 한국인의 치아우식예방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관리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치아우식증을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화물 및 치면열구 전색법을 이용하여야 하며[8] 정[7]은 치과위생사들이 불소의 치아우식예방효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치아우식예방법으로써 불화물 이용에 저조한 응답률을 보여 치과위생사의 불소이용에 대한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김[9]은 일반인들에게 구강환경관리 용품의 추천에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하여 올바른 구강환경관리 용품을 선택하여 구강건강을 더욱 증진 유지시키기 위해서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가 각 용품에 대해 현재보다 많은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구강보건교육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시켜야 함을

보고하였다.

치과위생사들의 자신의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서 조사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은 '보통이다' 혹은 '건강하다'고 지각하고 있었고 이는 강[10]과 조[11]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부분의 사업장 근로자들은 자신의 구강상태가 건강하지 않다고 대답한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일반인보다는 치과위생사들의 구강관리가 더 잘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었다. 잇솔질 횟수로는 전체적으로 3회가 62.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4회 28.4%로 나타났다. Glickman[12]은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해 하루에도 음식물 섭취 후 여러 번 잇솔질 할 것을 권하여 잇솔질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으며 조[13]의 일부지역 주민들의 치주질환 인식도에 관한 조사 연구에서는 하루 평균 잇솔질 하는 횟수로 2회 정도가 61.7%로 가장 높았다. 한[14]의 보건요원의 구강보건실태에 관한 연구에서는 1일 평균 칫솔 사용 빈도가 1.8회로 나타났으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백[8]의 연구에서는 1.93회로 나타나 치과위생사의 잇솔질 횟수가 일반인 보다는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잇솔질 방법으로는 rolling법이 85.2%로 가장 많이 실시되고 있었다.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11]의 연구에서는 구강보건실천도에서 회전법에 대한 실천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한[14]은 잇솔질 방법에서 회전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1.4%로 과반수를 나타낸 반면에 실제로는 평행법으로 칫솔을 사용한다는 경우가 91.1%로 대다수를 차지해 잇솔질 방법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치과위생사가 일반인보다는 올바른 잇솔질 실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칫솔의 종류로는 중간모 69.2%, 부드러운 모 28.4%순이었으며 단단한 모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구[15]는 칫솔모의 중간정도인 칫솔을 사용한 실험군의 경우 치태 지수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P값<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치과위생사들이 치아마모증을 경험하는 환자들을 임상에서 직접 경험하기 때문에 일반인보다는 칫솔의 강도 선택에서 신중한 것으로 사료된다.

잇솔질 시간으로는 49.7%가 3분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잇솔질 시기로는 점심식사 후가 27.8%, 아침식사 후 23.8%로 아침과 점심 식사후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고 김[16]의 연구에서도 점심식사 후가 가장 높아 이 연구 결과와 같았다. 이[17]의 목포지역의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아침과 저녁에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한[14]의 보건요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아침식사전, 취침 전, 아침식사 후 순으로 나타났으며 조[13]는 아침, 저녁 식사 후가 65.0%로 가장 높아 이 연구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는 근무환경의 차이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사용하는 치약의 불소함유 여부는 '예'라고 답한 사람이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그 다음이 '잘 모르겠다', '불소가 들어있지 않다' 순으로 나타났다. 김[16]은 대상자의 40.4%가 사용 치약의 불소함유를 인지하고 있다하여 일반인보다는 치과위생사가 인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률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응답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아직도 치과위생사들에게 불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용하고 있는 구강보조용품으로는 전동칫솔, 구강양치액, water pick, 치간고무자극기 중 구강양치액이 가장 많았으며 김[9]은 구강양치액은 신문이나 TV광고를 통해 많이 알고 있어 사용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조[11]는 구강양치액이 처방없이도 살 수 있고 구입과 휴대가 용이하며 사용 시 상쾌함을 줄 수 있어서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치실이나 치간칫솔 사용 여부는 78.1%가 사용한다고 응답하였고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에 대해 1일 1-2회가 42.4%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1회 소요시간은 1분 미만이 5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18]는 치간칫솔과 치실의 사용율이 4.5%에 불과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조사대상자 중 치실의 경우 17.19%, 치간칫솔은 6.88%가 '사용한다'라고 응답해 일반인보다는 치과위생사가 구강보조용품의 사용율이 상당히 높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본인의 구강위생관리 활동으로는 식사 후 껌저작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정기적 치과방문, 금연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본 결과 치과위생사들의 자기구강건강관리는 일반인보다는 양호하였으며 구강위생관리라는 실질적인 접근으로 치과위생사의 자기구강건강관리능력을 평가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두며 치과위생사는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임상에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겠다.

요 약

본 연구는 구강보건의 전문적 지식과 관리능력을 습득한 치과위생사의 현재 자기구강건강 관리능력을 파악하여 치과위생사의 구강관리 능력을 평가하고 공중구강보건의 현장과 치과임상의 현장에서 그 시기에 알맞은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치과처치의 담당자로서 보다 효과적인 구강보건교육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2002년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설문에 응답한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20-24세가 52.7%, 25-29세가 38.5%였고 81.1%가 미혼이었다. 근무처는 치과의원이 55.6%, 치과병원이 34.3%를 차지했고 근무연수는 0-2년차가 38.5%, 3-5년차가 36.7%였으며 근무처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 수는 4명 이상이 74.6%로 나타났다.
2. 구강위생 지식에서는 치면열구전색과 치면세마가 3.82±.39로 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잇솔질 교습으로 3.70±.53, 불소도포 3.70±.48, 구강보조용품 사용방법 3.52±.63 순으로 나타났다.
3. 자기구강위생 관리실태에서는 치과위생사들의 현재 자신의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서 조사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보통이다' 혹은 '건강하다'라고 지각했다. 잇솔질 횟수로는 전체적으로 3회가 62.1%로 가장 많았고 잇솔질 방법으로는 rolling법이 85.2%로 가장 많이 실시되고 있었다. 사용하는 칫솔의 종류로는 중간모 69.2%, 부드러운 모 28.4%순이었으며 잇솔질 시간으로는 49.7%가 3분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잇솔질 시기로는 점심식사 후가 27.8%, 아침식사 후가 2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용하는 치약에 불소함유 유무는 '예'라고 응답한 수가 6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잘 모르겠다'가 19.5%, '아니오'라고 응답한 수가 14.2%순으로 나타났다.

사용하고 있는 구강보조용품으로는 구강양치액이 23.1%로 가장 많았다. 치실이나 치간칫솔 사용 여부는 78.1%가 사용한다고 응답하였고 1일 1-2회 사용이 42.4%였으며 1회 소요시간은 1분 미만이 53.8%로 나타났다. 본인의 구강건강관리 활동으로는 식사후 껌저작이 17.2%로 가장 많았고 정기적 치과방문이 8.3%, 금연이 5.3%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치과위생사의 경우 교육기관에서 전문적인 이론 및 임상실습으로 일반인보다는 구강건강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아직도 불소나 예방치료에 대한 지식과 관리 측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구강보건을 책임지는 전문가적 한 사람으로서 일반인과 환자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가 자신의 구강건강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러한 실천은 환자 개개인에게 적절한 구강건강행위의 변화 및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 수 있게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구강보건교육에 반영되고 응용되어져야 된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1. 강부월 외 6: 치과위생학 개론. 서울, 청구문화사, p.25, 1994.
2. 김종배: 치학개론. 수문당, 서울, p.42, 1983.
3. 강부월, 김정혜, 최옥순: 치과응급처치. 청구문화사, 서울, pp.35-36, 1999.
4. 문희정: 치과위생사의 진료자세와 통증과의 상관관계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5. 박순주: 치과위생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6. 김숙향: 치과위생사 임상실무. 의치학사, 서울, p.68, 1999.
7. 정재연: 한국치과위생사들의 치아우식예방에 대한 지식·태도 및 실천에 관한 조사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8. 백대일: 한국인의 치아우식예방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관리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7: 254-263, 1993.
9. 김종배, 백대일, 문혁수 등: 구강환경관리용품의 선택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6(2): 493-503, 1992.
10. 강명신: 구강보건인식, 태도, 행동 및 지식도가 치태관련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11. 조성숙: 사업장근로자의 구강보건인식 및 실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2. Glickman IC: Preventive periodontics. A blue print for the periodontal health of the American public. J Periodontology 38: 361-365, 1967.
13. 조명숙: 일부지역 주민들의 치주질환 인식도에 관한 조사(1)-대구시 중심. 한국치위생학회지 1(2): 111-115, 1996.
14. 한향섭: 보건요원의 구강보건실태에 관한 연구. 국립보건연구원보(16): 101-106, 1979.
15. 구경애: 칫솔 및 치약함유 성분이 치태 및 치은 염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16. 김혜경: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에 관련된 요인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17. 이향님: 구강진료기관 이용자의 구강보건 지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조선대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18. 이영혜, 김종배: 가정구강보건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supplement, 18(24): 256-264, 1994.

(Received December 31, 2004; Accepted March 7, 2005)